

월경 끝 난 뒤의 부인 를, 눈물과 눈픍이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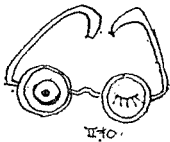
약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않는다. 심할때는 구역질이 나고 시력이 급격히 약해져 잘 보이지 않는다.

이 급격한 두통실명상태를 한방에서는 옛부터 뇌두풍(雷頭風)이라 하여 치료하였다. 안구를 자세히 보면 각막은 광택한 기운이 없고 김이 서린듯이 흐려져 있으며 눈동자는 커져 있으나 밝은 광선을 비쳐도 축소되지 않는다. 동공(瞳孔)의 색은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푸른색을 띠고 안압(眼壓)이 심하며 안구는 돌과 같이 단단해진다.

이같은 증세는 40세이상 특히 여성에 있어서 저녁이나 아침 일찍이 두통을 느끼는데 이런 현상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일어난다. 이때 전등을 보면 등주위에 무지개를 보는듯이 보이고 또 시력이 나빠져 안개속에서 있는것 같은 기분과 함께 가벼운 안통(眼痛)을 느끼게 된다. 이런 증상은 뜻밖에 일어나는데 보통 소홀히 넘겨 버리는 수가 있다.

월경 뒤의 눈병

각종 눈병 이야기



녹내장의 증상

녹내장(綠內障)이라는게 안구(眼球) 안에 방수(房水)가 계속생산되어 수정체와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대사를물질을 안구 밖으로 나가게 한다.

방수가 나가야할 통로에 이상이 있으면 안내압(眼內壓)이 높아진다. 이것을 녹내장이라 하며 한의학에서는 청맹녹풍(靑盲綠風)이라고 한다.

증상은 처음 생길때는 갑작이 눈에 격심한 통증과 두통을 일으키면서 눈에 붉게 충혈이 생긴다. 때로는 눈시울과 각막에 부종이 생겨 눈이 붓고 치통(齒痛)과 식욕 부진으로 몸이 쇠

에 녹내장(綠內障) 오기 쉽고, 외상 후에도 주의 벌레 날아 다니는 것 같은 것이 보이면 백내장이

단성(單性) 녹내장이라는 병형(病形)이 있는데 이것은 서서히 시력 장애를 일으키며 시야가 좁아지며 외안부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안압의 항진상태만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 원인은 원발성 녹내장과 여러 가지 안질환으로 속발성 녹내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증세는 나이 많은 원시안자에 많고 부인은 월경이 끊어진 뒤에 많이 나타난다.

대체로 이런 눈병은 사람이 호되게 놀라면 눈동자가 흐려져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혈행장애에서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양부족 병후 피로 지방심혈관 수면불안 정신울적 월경불순 등에 기인되어 유발되는 것도 있다. 그외에 신경통, 류머티즘, 통풍, 고혈압, 매독 등 환자에 빈발하고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드물게는 눈 수술 후 눈의 외상으로 오는 수도 있다. 한방약에도 여러 가지 방법 훌륭한 처방이 많으나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장님 면한 눈병

29세의 약관 해군출신이 있었다. 성격은 예민하고 괘괄한 편이어서 신경질적이었다. 해군 재직 당시부터 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고생 끝에 급기야는 해군 병원에서 한쪽 눈을 제거하고 예편되었다.

수개월 후 다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문병원으로 전전 끝에 결국 또 한쪽 눈마저 빼지 않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눈은 모두 두개 뿐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환자 부친의 강경한 권유로 K의사를 찾아 갔다 2개월 동안 복약한 때 부터 우선 통증이 차차 가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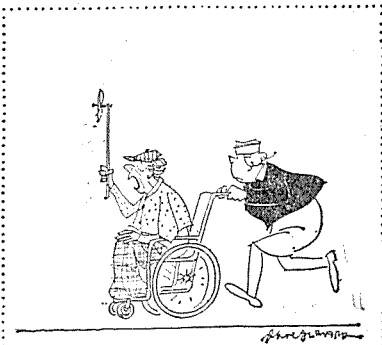
의사 자신도 너무 신통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부터 몇개월 후 그환자는 장님은 면했고 환자 아버지로부터 극구 칭찬을 받은 일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다.

백내장의 증상

눈은 마음의 거울이며 일신정기는 눈에 있다고 하였다. 희노애락의 표

현이나 일신상의 병증 또는 건강의 상정도 눈동자를 보고 알 수 있다. 만약 눈을 감고 단 100m만 걸어보면 눈의 가치관을 깨달을 것이다. 눈병의 종류 또한 수없이 많다. 눈마래끼를 비롯 눈물이 흐르는 병, 트라흙, 노역, 당달보살, 원시, 근시, 야맹증, 등 10가지 이상의 눈병이 있다.

눈병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내장(白內障)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水晶體)에 이상이 생겨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처음에는 비문증(飛蚊症...눈속을 조그만 벌레가 날아 다니는 것같은 느낌) 다시증(多視症...물건이 여러개로 보임) 야맹증(夜盲症...빛이 강한 곳에서 잘 보이지 않음) 등의 증상을 띠고 점점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된다.



더빨리, 더빨리

타각적(他覺的)으로는 눈동자의 수정체는 회백색으로 흐려지고 색이 없는 것과 혹은 조그마한 색이 있는 것이 인식된다.

이병의 증상 경과는 외(外)인성인 것 이외는 모두 완만하여 서서히 나타난다. 수정체 일부에 국한 되는 것은 국한성 백내장 그 진행이 전면적으로 미친 것을 완전백내장이라고 한다.

그외에 선천성의 것 다른 눈병으로부터 속발적으로 일어 나는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노인성 변화로서 일어나는 노인성 백내장, 당뇨병에서 속발하는 당뇨병성 백내장 등이 많다.

안막에 아지랑이

한방약으로는 당뇨병성인 것과 노인성인 것에 장기간 복용하면 호전되는 수가 있다.

대명복광산(大明復光散)이라는 처방은 백내장에 통증이 없으며 눈물과 눈꼽이 없으며 먼곳이나 물건을 보면 마치 안개나 아지랑이가 낀것같이 희미하게 보인다.

또한 조그만 벌레가 날아 다니는것 같으며 눈앞이 산란하고 점점 증상이 심하여 검은 눈동자의 윤곽이 희미해 지는데 장기간 복용하면 된다.

명월상수원(明月狀水元)은 간(肝)

과 신장이 부족하여 눈이 침침하여 항상 검은 점이 보이고 찬눈물이 흐르는데 몸을 보하고 간을 보호하며 피를 맑게 하고 눈을 밝히는 약이다.

사팔뜨기와 난시증

속경 사팔뜨기눈은 도시증(倒視症)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좌측을 보면 눈은 우측을 보는 것과 같이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일명 사시증(斜視症)이라고도 한다.

또 난시증(亂視症)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눈을 뜨면 새나 곤충이 날아 다니는 것 같아 자주 헛손질을 하게 된다.

야맹증의 증상

야맹증(夜盲症)은 광선이 약할때 어두운 장소등에서 특히 시력이 감퇴되어 보이지 않는 병이다.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다. 선천성은 대개는 영양실조에서 일어난다. 주로 비타민 A 결핍에 의한다.

후천성은 대개는 급성으로 나타나며 해산한 부인이나 교도소의 죄수, 강한 광선 밑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황달병이나 결막, 각막 건조증에서 병발할 수도 있다.

선천성의 치료는 곤란하나 후천성의 치료는 적당하게 치유될수 있다. 비타민 A 공급이 열쇠다.

토막 상식

냉증(冷症)과

혈문 이상

냉증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어 나지만 냉증이 있는 사람은 자주 혈문의 변조(變調)가 일어나, 그 혈문 이상이 2차적으로 냉증을 가져오게 하는수도 있습니다.

수척형 때로는 비만형의 여인이 냉증을 호소해 오는 가운데는 월경불순, 양(量) 감소, 무월경등의 사람이 많고, 기초체온을 보면 배란이 없던가 혈문 실조(失調)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수 있다. 진찰해 보면 자궁이 적어졌거나 자궁근

종(子宮筋腫)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이것은 불임증(不妊症)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혈문 상태를 잘 검사하고, 전신 건강상태도 체크하여 바란스 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혈문 치료도 시행하는수가 있는데 반드시 전문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더욱 혈문 변조를 조장하거나 부정출혈(不正出血)을 일으키게 된다.